

# 이중경어 사용에 대한 탐색적 조사 연구\*

—국회회의록 자료를 중심으로—

김 미 정\*\*

mjkgrass@gmail.com

## 〈目次〉

- |                       |                       |
|-----------------------|-----------------------|
| 1. 서론                 | 3.3. 존경어 이중경어         |
| 2. 선행연구               | 4. 조사 결과              |
| 2.1. 이중경어 문제 및 의식의 연구 | 4.1. 국회회의록에 나타나는 이중경어 |
| 2.2. 이중경어 사용실태 조사 연구  | 4.2. 시간적 변화           |
| 3. 조사 자료와 분석 대상       | 4.3. おっしゃられる의 추이      |
| 3.1. 예비조사             | 5. 결론                 |
| 3.2.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     |                       |

Key word : 존경어(Respectful Language), 이중경어(Double Honorific), 레룰경어(RERU Honorific), 국회회의록(the National Diet Record)

## 1. 서론

현대 일본어에서는 경어를 중복으로 사용하여 이중경어 또는 과잉경어라고 불리는 형식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言う, 話す의 존경어 おっしゃる, お話しになる에 다시 존경의 조동사(ら)れる<sup>1)</sup>를 접속한 ‘おっしゃられる’ ‘お話しになられる’와 같은 것인데, 존경어 召し上がる를 ‘お~になる’형에 넣어 다시 존경의 조동사를 접속한 ‘お召し上がりになられる’와 같은 것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4845)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본어학

1) 이하, 레룰로 표기

있다. 또 ‘いただく(いただく+レル)’ ‘お話しされる(お話しする+レル)’와 같이 겸양어에 존경의 조동사를 접속한 형식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어가 중복되는 어형의 문제와 겸양어를 존경어로 사용하게 되는 경어 용법 변화의 문제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와 같이 경어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경어로 비판을 받아 왔고, 선행연구에서도 규범에서 벗어난 오용으로 설명하거나 사용의식을 묻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종래의 규범과 다르게 경어 형식을 중복하여 만드는 표현이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선택의 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중(또는 삼중)으로 사용하는 경어 형식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찾아 실태를 조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용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가 적절한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질적·양적인 면에서 적절한 자료를 찾아 이중경어의 사용례를 수집,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회의록을 자료로 존경어와 존경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사용례를 수집하여, 그 사용 양상과 시간적 추이 등을 살펴보고 어떤 경향과 특징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얻게 되는 지점은 일본어의 이중경어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 2.1. 이중경어 문제 및 의식의 연구

문화심의회 답신 『敬語の指針』(2007)에서는 이중경어(二重敬語)를 ‘하나의 단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경어를 이중으로 사용한 것(一つの語について、同じ種類の敬語を二重に使ったもの)’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경어란, 존경어와 존경어 또는 겸양어와 겸양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読む’를 ‘お読みになる’라고 하는 존경어로 만든 후 다시 ‘レル’를 접속

한 ‘お読みになられる’는 존경어를 이중으로 사용한 것이다. 『敬語の指針』에서는 이러한 이중경어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지지만, 습관으로 정착한 표현도 있다고 한다.<sup>2)</sup>

선행연구에서는 이중경어를 주로 오용(誤用)의 문제로 다루어 설명하거나, 이중경어 형식에 대한 감정이나 인상, 평가 등의 의식을 묻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규모 의식 조사의 예로 文化庁의 『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를 들 수 있는데, 1995년 결과에서 ‘お歸りになられる’와 ‘おっしゃられる’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気にならない)는 응답이 70%를 넘어, 20년 이상 이전부터 이중경어에 저항을 느끼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吉岡(2004)는 ‘お書きになられる’ ‘おっしゃられる’와 같은 존경어 이중경어 형식에 대한 수도권과 오사카의 규범의식을 비교하여, 수도권에서는 이중경어 형식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중경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격식적인 장면의 경어는 정중할수록 좋다, 많이 쓰면 좋다고 하는 규범의식이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중경어를 현대 경어의 성격 변화로 파악하는 연구도 보이는데, 菊地(1997)에서는 ‘경어의 대중화’나 ‘대화의 경어 발달’이라고 하는 경어 변화의 큰 흐름에 더하여 ‘レール경어의 신장(伸長)’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경어는 틀리기 쉬운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井上(2007)은 ‘경의 저감의 법칙(敬意低減の法則)<sup>3)</sup>’이 극단적으로 작용한 예로 이중경어가 등장하여, 상업적인 상황에서 가장 정중한 말투로서 이중경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또 井上(2017)에서 文化庁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존경어는 그 용법이 확대되어, 이중경어가 비난받으면서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종래의 규범과 다른 경어 형식이나 용법의 등장과 확대를 살피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

위의 설명과 같은 시각으로 河正一·徐明煥(2020)도 이중경어를 언어의 변화 과정으로 보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와 ‘おっしゃら

2) 습관으로 정착한 이중경어로는, 존경어 お召し上がりになる, お見えになる와, 겸양어 お伺いする, お伺いたす, お伺い申し上げる를 들고 있다.

3) 경의저감의 법칙은 일본어 외의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경향으로, 경어를 사용하는 동안에 효과가 약해져서 같은 어형의 경의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れる’에 대한 규범의식과 인상을 조사하여 ‘신경 쓰이지 않는다’와 ‘좋은 인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 2.2. 이중경어 사용실태 조사 연구

실증적인 자료에서 이중경어의 사용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데, 대규모 코퍼스 자료에서 ‘おっしゃられる’의 사용을 조사한 加藤(2018)이 흥미롭다. 加藤(2018)은 ‘おっしゃる’에 존경의 조동사 ‘レル’를 더한 ‘おっしゃられる’는 ‘おっしゃる’ 용례 전체의 3.2%로, 현대 일본어 경어 사용에 있어서 이중경어형의 사용 비율은 2~4% 정도라고 추측하여, 수량적인 면의 분석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 결과는 이중경어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회답의 형태로 제공된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 내용을 알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중경어의 사용을 조사한 연구로는 山本(2008), 峯田·藤原(2019), 李讓珍(2019)을 볼 수 있다. 山本(2008)은 국회회의록을 이용한 통계조사의 예로서 ‘おっしゃられる’의 빈도 조사를 소개하며 근년에 사용 빈도가 격히 늘어 다고 다. 이 조사는 2005년 지의 회의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근의 변화 경향은 단 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 어 운 부분도 보인다. 국회회의록의 자료적 특징에 주의하여 검증할 요가 있다.

峯田·藤原(2019)는 ‘お(ご)~になられる’형의 이중경어 추이에 대하여 사용 빈도는 계속 증가하지만, 그 종류는 한정된 표현에 집중적으로 나 난다는 것을 밝 다. 李讓珍(2019)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라 ‘お(ご)~になられる’형의 이중경어 사용이 증가 경향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통으로 국회회의록에 있어서 이중경어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お(ご)~になられる’형으로 나 나지 않는 존경어 특정형이 사용된 이중경어의 실태는 알 수가 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증하면서 존경어 이중경어 형식의 사용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조사 자료와 분석 대상

이중경어의 사용례를 수집할 자료를 찾기 위하여, 일본 국 국어연구소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이하, BCCWJ)’의 검색과 검색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정적으로 사용례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 국회회의록이 적합하다고 판단 는데, 이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 다.

#### 3.1. 예비조사

##### 1) BCCWJ 검색

BCCWJ는 검색 사이 ‘少納言’을 이용하여 ‘お(ご)~になられる’형의 이중경어 형식과 ‘おっしゃられる’ ‘召し上がられる’ ‘いらっしゃられる’ ‘なさらられる’ 등의 용례를 찾아보았다.

<표 1> BCCWJ에 보이는 이중경어

~							
ご覧になられる	12	10	23	1	2		48
おぐくなりになられる	8	10	3		3		24
御指摘になられる				22			22
お考えになられる	3	1		13			17
お帰りになられる	8		3			1	12
お話になられる	5			6			11
お聞きになられる	3	4		4			11

BCCWJ에서 ‘お(ご)~になられる’형의 이중경어는 모 397 의 사용례를 볼 수 있는데, 빈도(type frequency, 異なり語数)에서는 124개의 동사가 보인다. 표 1에는 빈도 124개 동사 중 현 수가 10을 넘는 이중경어를 나 내 다. 그 에 존경어 특정형 동사에 レル를 접속한 ‘おっしゃられる’ 176, ‘召し上がられる’ 3, ‘なさられる’ 1개 예를 볼 수 있다. ‘いらっしゃられ

る'의 용례는 검색되지 않았다.

동사에 른 개 적인 사용 빈도에서는 존경어 특정형에 レル를 접속한 'おっしゃられる'가 가장 많고, 그 다 이 'ご覧になられる<sup>4)</sup>'이다. 'ご覧になられる'는 'お(ご)~になられる'형의 검색 결과에 되지만, 존경어 특정형 ご覧になる에 レル가 접속한 것이다. 존경어 일반형과 레ル가 중복으로 사용된 형식에서는 'お亡くなりになられる'가 다른 동사보다 많이 현한다. '御指摘になられる'의 경 예는 모 국회에서만 사용된 예가 검색되어, 사용 에 라 사용되는 존경어 어 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에 른 양상을 보면, 존경어 이중경어의 용례는 서적 > 국회의회의 록 > 인터 (Q&A 게시판 로그) 으로 많은데, 서적을 제 하면 대인 가 많은 에서 이중경어 형식도 많아 다고 할 수 있 다.

서적에서 보이는 용례는 (1)시대 소설에 나 나는 이중존경어나 (2)실용서 에서 오용의 예로 다루는 등, 현대 일본어의 사용례로 인정하기 어 운 경 가 다수 되어 있어, 본 연구의 자료에서 제 하였다.

- (1)\*殿も替え馬をお持ちになられたほうがよろしいのではございますまいか、  
(鈴木輝一郎著 巴御前 /2004)
- (2)\*お見えになられる」は 「お見えになる」に尊敬を表す「れる」を付けた表現  
いわゆる二重敬語で マナーの本では 敬語の誤った用法と断じている  
(読売新聞新日本語取材班著 困ってませんか? 職場の言葉 /2005)
- (3)お分かりになられる方 回答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Yahoo!知恵袋/パソコン/周辺機器/2005)
- (4)このブログをご覧になられたら 2クリックを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Yahoo!ブログ/芸術と人文/芸術とアート/2008)

인터 상의 (3)Q&A 게시판이나 (4) 로그에서도 이중경어 형식의 사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 자료를 일본어 용례 수집에 용하기 위해서는 표본 선정과 조사 방법에 주의해 한다. BCCWJ에 수록된 인터 자료는 Q&A 게시판(2005년)과 로그(2008년)에서 작위 추 한 데이터인데, 신

---

4) 표기가 다른 '御覧になられる' 11, 'ごらんになられる' 6개 예를 포함한다.

의 사용례와 시간적 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 2) 검색

BCCWJ에 수록된 자료 이 에, 현재 어떤 문 에서 이중경어 형식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색 Google을 이용하여 용례를 찾아보았다. 조 을 통제하지 않고 단 한 검색만 해 보아도 다양한 기업과 , 시설 등의 이지, 통신관 사이 등에서 이중경어 사용을 관찰할 수 있다. (5), (6)과 같이 ( 재적) 을 대상으로 한 예도 보이지만, 공적인 (7)행정 기관이나 (8)교 시설의 내에서도 이중경어의 예가 보인다.

- (5)JRでいらっしゃられる患者様におかれましては 南口よりお越しいただく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 (歯科のアクセス案内/東京)
- (6)天然とらふぐってお召し上がりになられた事は有りますか? 今までお召し上がりになられたふく料理の常識を当店ならではの職人技にて変えてみます!! (飲食店の店主メッセージ/福井県)
- (7)所有者が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固定資産は 相続が行われるまでの間 相続権を有する方全員で共有している状態となります (町役場の案内/福島県)
- (8)初めてZoomをご使用になられる方<スマートフォン・タブレットでのご参加の場合> (大学のオープンキャンパス案内/北海道)
- (9)ビジネスでも非常によく使用される「おっしゃられる」ですが これは誤用なのです (意味解説情報サイト/ビジネス用語)

인터 상에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이중경어가 사용되고 있 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용 주체나 신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는 경 도 있다. 또 (9)와 같이 른 경어인지 어떤지를 화제로 하는 경 도 많기 때문에, 인터 상의 경어 사용을 조사할 때에는 주의가 요하다.

검색은 사용례가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거나 주변적인 용례를 발견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 지만, 동일 용례의 중복이나 내용에 편향이 존재하고 질성을 추어 보존된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적으로 용례 확보가 가능한 국회의의록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국회 회의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은 특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격식적이고 공적인 상황의 발언에 사용된 이중경어의 용례 수집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1947년부터 현재 지 75년간의 국회 발언을 검색할 수 있다는 에서,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3.2.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

일본의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https://kokkai.ndl.go.jp/#/>)은 제 1회 국회(1947년 5 20일 개 )부터 현재 지의 중의 과 참의 의 본회의 의 위 회 회의록을 수록하여, 2001년부터 인터 상에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이스이다. 2019년부터 검색 기능이 추가되고 검색 결과 일람 표시에 상한이 어져서 검색 결과 수가 많은 경 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 다<sup>5)</sup>.

본 조사에서는 먼저 제1회 국회부터 현재(2021년 12 31일) 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발언자나 회의를 지정하지 않고 존경어 이중경어 형식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 대상은 회의 참가자의 발언에 해 하는 본문으로 지정하여, 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전체조사 결과를 확인한 다 에는 가장 많은 현 수를 보이는 ‘おっしゃられる’는 회의와 기간을 지정하여 다시 모든 용례를 확인하였다. 조사와 고찰은 이하의 수 으로 행하였다.

#### 존경어 이중경어의 형 분류(3.3.)

→ [전체조사] 이중경어 형식의 검색 결과의 정리(4.1.)

검색 기간 : 1947년 5월 20일~2021년 12월 31일, 검색어형: 표 2에 정리

→ 경년 변화를 보기 위하여 1950년대부터 10년간 나 어 재집계(4.2.)

→ [ 조사] 회의와 기간을 지정하여 ‘おっしゃられる’의 용례 조사(4.3)

검색 기간 :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2021년(각 1년)

회의 지정 : 예산위원회, 검색어형: おっしゃられ

- 
- 5) 2019년 리뉴얼 이전에는 검색 결과를 1,000건까지만 표시했기 때문에, 회의나 기간을 지정하여 검색 결과가 1,000건을 넘지 않도록 해야 했다.
- 6) 검색어 입력란 우측의 ‘엄밀한 검색(厳密な検索)’을 체크해 두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이체자, 가나, 특수음을 구별하여 검색어와 엄밀하게 일치하는 문자열로 검색할 수 있다.



### 3.3. 존경어 이중경어

조사와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것은 존경어를 중복하여 만드는 이중경어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형을 분류하였다.

- ① 존경어 특정형 + レル
- ② 존경어 일반형 + 레ル
- ③ 존경어 특정형 + 존경어 일반형
- ④ 존경어 특정형 + 존경어 일반형 + 레ル

④ 존경어 특정형+일반형+レル형은 삼중경어라고 해 하는 경 이지만, 국회의회의록에서는 사용례가 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①~③의 이중경어 형식이다. 존경어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이중경어 대부분이 ①, ②와 같이 존경어에 ‘レル’를 더한 것으로, 자 룹게 접속하여 만들어내는 레ル경어의 특징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검색어형은 표 2와 같다.

<표 2> 국회의회의록 검색어형

①	+		7)
			8)
②	+		
③	+	+ ~	

7) 1954년까지의 회의록에는 ‘おつしやられる’로 표기되어 있어서, ‘おっしゃられ OR おつしやられ’로 OR검색을 하였다.

②는 존경어 일반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에 거의 제한이 는 형인데, 선행연구와 예비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상대방의 생각을 묻거나 발언을 언 하는 考える, 答える, 答弁する, 話す, 述べる, 指摘する와, 제3자를 주어로 하는 亡くなる의 존경어를 조사하기로 다.

おっしゃられる의 경 , (10)존경+피해의 수동, (11)존경+가능의 의미가 되는 경 도 된다. 49,000 이 넘는 검색 결과를 모 확인할 수는 지 만, 분석과 고찰에 향을 미 정도는 아 라고 판단하여<sup>9)</sup> おっしゃられる 의 검색 결과는 모 이중경어의 예로 집계하였다.

(10)本当かどうか知りませんよと言っているいろいろなことをおっしゃられたん  
じゃ困るんであって ~中略~ (151/衆/予算委員会/2001)<sup>10)</sup>

(11)先ほど御答弁になったとおりに全くないとは言えないでしょう おっしゃら  
ればそういう事実がある可能性もある (94/衆/予算委員会/1981)

겸양어 특정형 동사 伺う를 다시 겸양어로 만드는 お伺いする, お伺いいた  
す, お伺い申し上げる와 같은 형식은 『敬語の指針』에서 습관으로 정착되어  
용도가 높다고 하는 이중경어인데, 본 연구의 조사와 분석 대상에는 넣지  
않았다. 또 いただける, お話しされる와 같이 겸양어에 レル를 접속하여  
존경어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경어를 중복하는 이중경어에 해 되지  
않으 로 분석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존경어와 존경어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이중경어에 을 추어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4. 조사 결과

### 4.1. 국회의회의록에 나타나는 이중경어

<표 2>의 검색어형을 검색한 결과를 <표 3>에 정리한다. 검색 수는 각각

- 
- 8) ‘御覧になられ OR ご覧になられ OR ごらんいなられ’ 와 같이 OR검색을 하였다.  
9) 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샘플조사 결과, 976건의 용례 가운데 ‘존경+피해의 수동’으  
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3건, ‘존경+가능’은 1건이었다.  
10) 용례 정보는 (回次/院名/会議名/開催年)의 순으로 나타낸다.

의 이중경어 형식을 한 회의 참석자의 발언 수를 나 다.

<표 3> 존경어 이중경어의 검색 결과

	.....	
	.....	
	.....	
	.....	
	.....	
	.....	
	.....	
	.....	
	.....	
	.....	
	.....	
	.....	

표 3에서 가장 에 는 것은 おっしゃられる를 한 발언 수가 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존경어 특정형+レル’ 형의 이중경어는 おっしゃられる에 편중되어, なさられる, いらっしゃられる<sup>11)</sup>, 召し上がられる의 사용례는 드 계 나 난다.

- (12)おっしゃられるとおり 二〇二二年十月以降となっております  
(204/衆/厚生労働委員会/2021)
- (13)その点 大臣 どのようにお考えになれるか お聞かせいただきたいと  
思います (201/衆/経済産業委員会/2020)
- (14)とりわけ 先生が御指摘になられた経済的な負担もごございますけれども  
(196/衆/総務委員会/2018)
- (15)大嘗祭は 天皇陛下が御即位の後 新 を皇 天 にお えにな

11) いらっしゃる의 의미와 본동사인지 보조동사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집계한 것이다. 국회 회의록에 나타나는 いらっしゃられる는 いる의 존경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본동사(19건)와 보조동사(20건)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りまして また御み からもお召し上がりになる 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116/参/予算委員会/1989)

‘존경어 일반형+レル’형에서 빈도수 상위의 오考え에 나라れる와 御指摘에 나라れる의 결과를 보아도 おっしゃられる의 발언 수와 그 이가 서, 국회회의록에서 보이는 이중경어 형식은 おっしゃられる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경어 형식 가운데 おっしゃられる의 사용이 도적인 이 로는, おっしゃる라는 존경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회의 자료의 특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해 존경어 사용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이중경어가 나 나는지 살펴 보면, おっしゃる 사용에 있어서 확인한 おっしゃられる의 비율은 6.8%로<sup>12)</sup>, 御覧에 なる 사용에 있어서 御覧에 나라れる의 비율(2.6%)보다 높다. 이중경어화 비율은 발언 단위의 전체 검색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용 빈도가 높은 존경어가 이중경어로 사용되는 비율도 높아 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존경어 특정형 召し上がる를 다시 ‘お~になる’형으로 만든 お召し上がりになる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敬語の指針』에서는 습관으로 정착한 이중경어라고 설명하지만 국회 회의에서는 사용이 드문 어 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召し上がる가 4 의 발언에만 사용된 결과와도 상통한다. 게다가 お召し上がりになる를 사용한 37개의 발언에는 (15)와 같이 황의 위 의식에 관 하여 사용된 예가 20 되어, 극히 한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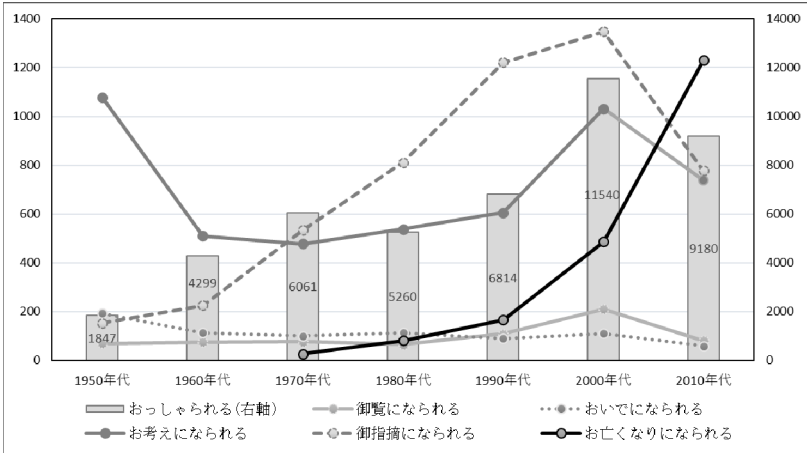
## 4.2. 시간적 변화

다 으로, 존경어 이중경어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950년부터 10년 기간을 나 어 집계해 보았다. 1950년 1 1일부터 1959년 12 31일 지를 1950년대로 하고, 그 후 2019년 지 70년간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그 1은 ‘존경어 특정형+レル’형의 おっしゃられる, 御覧에 나라れる, お

12) おっしゃる를 포함한 발언 수(714,405)에 대한 おっしゃられる가 사용된 49,034 발언의 비율을 단순히 계산한 것이다.

いでになられるわ, ‘존경어 일반형+レル’형의 お考えになられる, 御指摘になられる, お亡くなりになられる의 사용에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10년 기간을 나 어 집계한 결과를 나 것이다. 다른 이중경어 형식의 현 수와 이가 큰 おっしゃられる는 오른 의 으로 대그래 로 표시하였다.



<그 1> 존경어 이중경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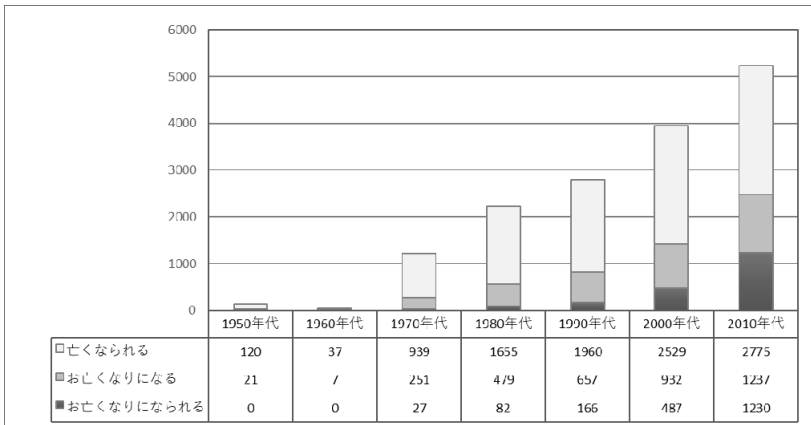
그 1에서, 이중경어의 추이는 존경어 동사에 라 다르지만 おっしゃられる를 비 하여 御指摘になられる, 御覧になられる 같은 것은 2000년대 지 증가하다가 2010년대에 감소 경향을 나 내고 있다. お考えになられる는 1950년대에 현 수가 많았 것이 감소한 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에 다시 큰 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근 2010년대에는 감소세를 보이는 이중경어 형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빈도의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고 감소 경향을 보이는 이중경어 형식은, 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가능한 존경어 형식의 사용과 이중경어에 대한 규범의식의 향도 고찰할 요가 있다.

다른 이중경어 형식과 대조적으로 お亡くなりになられる는 계속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하게 보이는데, 1970년대에 등장한 이후<sup>13)</sup>, 큰 으로 증가하면서 근 2010년대에는 ‘존경어 일반형 +レル’형의 이중경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亡くなる의 존경어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시기로 조사해 보았다(그 2). 국회의회의록에 나타나는 亡くなる의 존경어는 그 과 같이 조동사 레를 접속한 (16)亡くなられる, お~になる형의 (17)お亡くなりになる, 이중경어 형식 (18)お亡くなりになられる가 모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레경어의 亡くなられる가 많지만, お亡くなりになる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중경어 형식의 사용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2> 亡くなる의 존경어 형식의 추이

- (16) 亡事を労働が東京のて續して生したことはめて  
でありまして 亡くなられた方の御福をよりおりいたします  
(189/衆/予算委員会/2015)
- (17) 二をえる方がお亡くなりになりました (198/参/予算委員会/2019)
- (18) めて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の御福をおりし上された  
全ての方によりお見いしします (198/参/本会/2019)

峯田・藤原(2019)는 재해나 사 이 있을 때 도 표명이 반복되면서 お亡く

13) お亡くなりになられる가 처음 나타난 것은 1947년 제1회 국회에서 1건의 예가 있지만, 그 이후 1975년까지는 용례를 볼 수 없다.

なりになられる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여 정형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고  
 는데, 亡くなる의 존경어는 가능한 모든 형식이 과거보다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존경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亡くなられる나 お亡くなりになる만으로  
 는 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어 보다 정의(敬意)가 높은 형식을 찾아 이중경  
 어 형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는 정의저감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이와  
 동시에 고 편리하게 존경어를 만들 수 있는 レル경어의 향도 이중경어  
 증가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 4.3. 의 추이

앞서 전체조사의 결과에서 이중경어의 현 수와 추이를 살펴보았으나,  
 이때 국회의회의록이라는 자료의 특성에 주의해 한다. 개 되는 회의 수에  
 극단적인 이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회의록의 규모는 해마다 달라  
 질 수 있다. 또 발언 단위의 검색 결과는 반드시 용례 수와 일 하는 것이  
 아 라는 예도 주의해 한다. 아래의 (19)와 같이 하나의 발언<sup>14)</sup> 에 이중  
 경어 형식이 여러 사용되는 경 가 있는데, 이 예도 하나로 집계하기  
 때문에 발언 단위의 검색 결과는 정확성이 어질 수 있다.

(19) が言っているのは 中 務大臣も 初おっしゃられましたし 本さ  
 んもおっしゃられましたように アメリ の じゃない ここは前 で  
 す (120/衆予算委員会/1991)

이러한 문제를 피하 면 하나하나 직접 발언을 확인하고 용례 수를 추 해  
 하지만, 5만에 가 운 검색 결과를 모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おっ  
 しゃられる의 사용 양상을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회의와 시기를 지정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회의록 전체 자료 가운데, 조사 대상 시기를  
 1951년부터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2021년의 각 1년간, 회의는  
 예 위 회<sup>15)</sup>로 지정하여 おっしゃられる의 용례를 모 조사하였다. 예 위  
 회를 선택한 이 는, 제1회 국회부터 존재하는 상 위 회이면서 본회의와

14) 발언 번호가 부여된 회의 출석자 한 명의 발언.

15) 각 분과회 및 공청회도 포함.

다르게 위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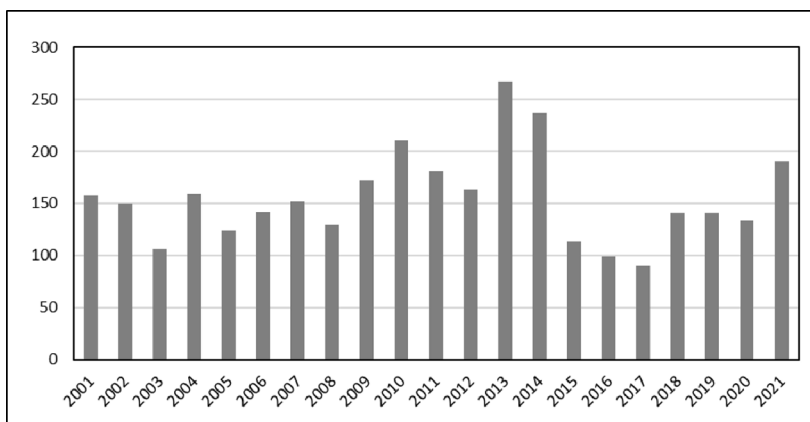
표 4에서 먼저 회의 수를 보면 예 위 회가 개 된 회의 수는 1951, 1961, 1971년은 100회가 넘 지만, 어들어 근 2021년에는 70회가 개 되 다. 반면, 해 회의 수(おっしゃられる를 한 발언이 나 난 회의 수)는 1961년 이후로 변화가 지 않아서, 회의에서 おっしゃられる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예 위 회에 사용된 おっしゃられる


おっしゃられる를 한 발언의 수와 용례 수를 비교하면 용례 수가 간 더 많은데, 사용 양상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발언 수와 용례 수 모 시간의 경과와 증가하고 있어, おっしゃられる의 사용은 회의록의 규모 변화나 검색 결과 표시의 문제를 고 하더라도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는 4.2.에서 おっしゃられる의 사용이 근 10년간 감소세를 나 내 것과 일 하지 않는다. 그 인을 찾기 위하여 2001년부터 현재 지 예 위 회에서 사용된 おっしゃられる의 추이를 1년 나 어 다시 조사해 보면, 증감을 반복하며 상 히 큰 으로 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10년에 한 이라는 조사의 수 로는 발한 변화를 제대로 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3> おっしゃられるの 추이(예 위 회, 2001-2021)

그리고 발언자 수에 주목해 보면, 표 4에서 1991년 이후 용례 수의 증가에 비하여 발언자 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1년의 예 위 회에서 おっしゃられる의 용례는 1991년보다 2 로 증가하였으나, 발언자 수는 동일하다. 이는 발언자 한 명이 이중경어 형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021년 199 의 사용례 중 108 (54.3%)이 한 명의 발언자(T국 대신, 1964년생 성, 三重県 신)에 의한 것이다.

T국 대신은 2013년(267 중 113 ), 2014년(237 중 100 )에도 예 위 회 발언에서 おっしゃられる를 다용하여, 이 시기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 다. 한 의 회의에서 반복하여 おっしゃられる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20)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발언에 대하여 ‘おっしゃられるとおり’와 같은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하는 예가 많다.

(20)委員おっしゃられますとおり の方 また の方 どうしてもマスクが けられないというような状 にあります ~ 委員がおっしゃられるとおり 中には働くこと の ンが ちてきている とういうような もお聞きをするわけでございまして ~ 委員がおっしゃられるようなところも めてしっかり 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 今総理おっしゃられましたとおり ~ (204/参/予算委員会/2021)

T국 대신은 おっしゃられる 만 아 라 다른 동사의 ‘존경어 일반형+レル’ 형의 이중경어도 자주 사용하는 특징이 보이는데, 이 게 이중경어 형식을 빈 하게 사용하는 회의 참석자의 발언량이 많은 경 , 회의 전체의 이중경어 사용 빈도가 높게 집계되는 경 가 있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 근의 おっしゃられる는 일정한 방향으로 추이한다고 예측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이중경어를 사용하는 특정 발언자의 향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적으로 증가하여 정착하고 있는 お亡くなりになられる와 다르게 おっしゃられる는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도 직 이 큰 상대라고 할 수 있 다. 후, 존경어 형식의 선택과 규범의식, 개인의 반복적인 사용과 전체에 미 는 향, 분석 자료의 해석 방법 등을 검증하며 관찰해 나가 한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존경어 이중경어에 주목하여,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그 사용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예비조사에서 국회 회의와 인터넷 상의 언어 사용에 이중경어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국회회의록을 자료로 이중경어 사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회회의록을 자료로 한 전체조사와 조사의 결과는 다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국회회의록에서 가장 빈 하게 사용되는 이중경어 형식은 ‘おっしゃられる’이며, ‘존경어 일반형+レル’형에서 빈도수 상위에 나 나는 お考えになられる, 御指摘になられる와 비교해도 도적이다. ‘존경어 특정형+존경어 일반형’의 이중경어는 한정적인 사용례만 확인된다.

2) 시간적 추이는 존경어 동사에 라 증감의 양상이 달라 다. 이중경어의 사용은 90년대 이후 증가하다가 근에 감소세로 보이는 경 가 많지만, お亡くなりになられる와 같이 계속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하게 보이는 형식도 있다.

3) 예 위 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회의록 규모의 변화나 검색

결과 표시의 문제에 향을 받지 않고 おっしゃられる의 사용이 계속 증가해  
 것 보이지만, 조사 시기를 더 작은 간격으로 나 어 보면 증감을 반복하  
 며 발히 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중경어 형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발언자의 존재가 결과에 향을 미 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존경어 이중경어의 사용은 선택되는 어 와 사용자에게  
 편중이 있다는 것을 밝 다. 본 논문은 대인 가 많은 의 하나로 국회의  
 ‘회의’라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결과는 다른 사용 과의 비교  
 검증이 요하다. 예를 들면 대인 에 른 경어 사용이 많은 집 이나  
 비 스 장면에서는 국회와는 다른 양상이 관찰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를 구 하여 검증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중  
 경어를 사용하는 화자에 주목하는 연구와 , 자료의 성질, 규범의식, 존경  
 표현의 다양화 등의 요인을 고 한 분석이 요하다.

< >

- 讚 (2019) 「尊敬表現『お・ご~になられる』の使用に いて- 会会 스  
 を研 資料として-」日本文 学報 83 日本文 pp.201-219
- 一・ (2020) 「敬語の変 の え方-大学生 の意識 から-」日本  
 85 語大学 日本 所 pp.197-223
- 井上 (2007) その敬語では をかく! PHP新 pp.86-95
- \_\_\_\_\_ (2017) 新・敬語 な 「 れる」のか NHK 新 pp.19-42
- 木 ・ 日 (2014) 「BCCWJにおける敬語 の使用実態」  
 5回コーパス日本語学 ーク ップ予 語 所 pp.347-356
- 加 (2018) 「『おっしゃられる』のような二重敬語はどのぐらい使われていますか」  
 語 所 [https://kotobaken.jp/qa/yokuaru/qa-50/\(2022.2.11.\)](https://kotobaken.jp/qa/yokuaru/qa-50/(2022.2.11.))
- 人(1997) 敬語 pp.410-444
- 文 (1995) 「 語に する 報 」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kokugo\\_yoronchosa/pdf/92701201\\_24.pdf](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kokugo_yoronchosa/pdf/92701201_24.pdf) pp.30-34
- ・ (2019) 「 会会 に見る二重尊敬表現」中 大学 文 62 中  
 大学 文学会 pp.139-156
- 本 (2008) 「 然言語 理での 会会 の 用」 会会 を使った日本語  
 じ pp.235-253
- (2004) 「コ ー ン意識と敬語行 にみる イトネスの 。

- 大のネイブ者 -」 会言語科学 7-1 会言  
語科学会 pp.92-104

접 수 일: 2023년 1월 05일  
심사완료: 2023년 1월 18일  
게재결정: 2023년 1월 19일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use of double honorifics**

-Based on the National Diet Record-

This article examines the use of double honorifics based on the data of the Diet Record.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 of double honorifics in the data of the National Diet is OSSYA-RARERU, and it is predominant compared to other types. The double honorifics of “respect specific type + respect general type” are only identified with very limited cases of use.

2) The pattern of change varies depending on the respective verb in the temporal trend. Although the use of double honorifics has often increased since the 1990s, it seems to have recently turned toward a decline. However, there is also a form that clearly shows a tendency for use to continue to increase, such as ONAKUNARININA-RARERU.

3) In the sample survey of the Budget Committee, the use of OSSYA-RARERU seems to have continuously increased, but dividing the survey period by smaller intervals shows that it keeps increasing and decreasing a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presence of a specific speaker who actively uses the double honorific form affects the results.